‘ML선발의 자격’ 증명한 김광현

2회 제외한 매회서 4개 구종 자유자재 투구
실트 감독 “투구의 기술 꿰뚫는 피치 메이커”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23일(한국시간) 신시내티전 구종 분석

구종	투구수
포심패스트볼	38
슬라이더	26
커브	11
체인지업	8
합계	83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KBO리그 시절 포심패스트볼(포심)과 슬라이더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투 피치’의 이미지가 강한 투수였다. 포심의 구위가 워낙 뛰어났기에 가능했다. 시속 150km를 웃도는 포심은 상대 타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세컨드 피치’인 슬라이더도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타자들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드 피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커브의 비중을 점차 늘린 것도 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다.

강속구 투수들이 즐비한 메이저리그(ML)에선 시속 150km대 포심과 슬라이더만으로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 오랫동안 ML 무대를 꿈꿔왔던 김광현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쉴 틈 없이 힘과 힘의 대결이 펼쳐지는 ML에선 구종의 다양화를 통해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진가를 보여준 경기가 ML 첫 승을 따낸 23일(한국시간) 신시내티 레즈와 홈경기였다.

이날 김광현은 최고 구속 92.6마일(약 149km)의 포심(38개)과 슬라이더(26개), 커브(11개), 체인지업(8개)을 섞어 83구를 던지며 신시내티 타선을 잠재웠다. 여전히 포심과 슬라이더의 비율이 총 77%(64구)로 높은 편이었지만, 커브와 체인지업의 활용을 주저하지 않았다. 2회를 제외한 매회 4개의 구종을 모두 던졌다. 3회 프레디 갈비스, 6회 맷 데이비슨을 상대로는 체인지업을 던져 뜬공 유도에 성공했다.

3개의 삼진을 솎아낸 결정구는 모두 슬라이더였다. 특히 5회 우타자 갈비스를 바깥쪽 낮은 코스의 슬라이더로 루킹 삼진 처리한 장면이 돋보였다.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휘는 체인지업 또는 포심을 생각했던 갈비스는 그야말로 꼼짝 없이 당했다. 김광현이 레퍼토리를 늘리며 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덕분이다.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도 현지 언론과 화상 인터뷰를 통해 “김광현이 스트라이크 존 상하좌우를 고루 활용했다”며 “김광현은 ‘피치 메이커’다. 투구의 기술을 알고 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김광현은 어엿한 ML 선발투수가 됐다. ‘피치 메이커’라는 사령탑의 칭찬이 그 증거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Lotto 6/45 925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20년 08월 22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3	24	32	34	39	42	4

1등 총 당첨금 2,211,252,966원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12	1,771,080,532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68	52,090,604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2,335	1,516,986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17,863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944,019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클린센터 080-800-0501 www.clean.dhlottery.co.kr

코로나의 습격…KBS·CJ ENM·JTBC·넷플릭스, 드라마 제작 중단 ‘초유의 사태’

방송연예계 ‘셧다운’ 현실화 되나

배우 등 잇달아 확진에 선제적 조치
특수한 제작환경 ‘n차 감염’ 우려 커
일부 예능 프로그램도 휴방 결정
확진 증가땐 상당수 방송 제작 중단

KBS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드라마 제작을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단한다. 방송연예계가 감염병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잇따라 관련 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촬영 중단된 ‘도도솔솔라라솔’의 포스터. 사진제공 | KB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위기 상황에 연기자를 비롯한 방송연예계 관계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각 방송사들이 드라마 제작을 중단한다. 또 일부 예능프로그램도 휴방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방송연예계 ‘셧다운’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신규 제작을 전면 중단하거나 방송을 앞둔 프로그램의 결방과 휴방이 이어지는 위기에 대비하려는 방송연예계 관계자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 대비

KBS와 케이블채널 tvN·OCN을 운용하는 CJ ENM, 종합편성채널 JTBC,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 넷플릭스가 드라마 제작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KBS는 24일부터 30일까지 ‘도도솔솔라라솔’을 비롯해 ‘암행어사’ 등 모두 다섯 편의 드라마 촬영을 멈춘다. 당장 26일 첫 방송할 예정이었던 ‘도도솔솔라라솔’은 편성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CJ ENM도 같은 기간 tvN과 OCN 드라마를 당분간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 tvN ‘악의 꽃’과 29일 선보이기로 했던 OCN ‘미씽: 그들이 있었다’ 등이다. JTBC는 ‘18어게인’과 ‘경우의 수’ 등 모두 여섯 편의 드라마 촬영을 중단했다. 넷플릭스도 한국 콘텐츠 제작을 잠정 중단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나섰다.

또 일부 예능프로그램도 제작을 일시 중단하거나 휴방한다. tvN ‘서울촌놈’이 31일까지 촬영을 멈추고, 엠넷 ‘엠카운트다운’은 27일 생방송을 취소했다.

이는 최근 연기자와 스태프 등 방송연예계 관계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확산을 막기 위한 방송사들의 선제적 방역 조치다. 앞서 20일 김원해와 허동원, 서성종 등 연기자들과 분장사 등 일부 제작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들이 출연 중인 드라마 KBS 2TV ‘도도솔솔라라솔’의 고아라, 서이숙 등과 JTBC ‘장르만 코미디’의 오만석 등이 관련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23일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고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최악의 위기가 닥치지 않기를”

그럼에도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 ‘겹치기’ 출연하고, 실내외에서 다수의 연기자와 스태프가 일정 시간 함께 작업해야 하는 제작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점 등에 비춰 ‘n차’ 감염 우려가 여전하다. 아직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하지 않은 MBC와 SBS는 “제작현장 인원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 기준(실내 50명·실외 100명)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현장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고 “(앞으로)더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방송연예계는 프로그램 출연자와 스태프의 확진, 그로 인한 ‘n차’ 감염 우려가 더욱 커질 경우 상당수 프로그램 제작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KBS는 “향후 방송 일정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그만큼 방송연예계도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한 위기 단계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눈야구의 팀’ 상대로 無볼넷 팔색조 진가 보여준 류현진

볼넷비율 리그 5위 탬파베이 상대로
5이닝 무4사구 6삼진 1실점 괴물투
3·5회 투구수 많아져 긴이닝 실패
현지매체 “에이스 모습” 극찬세례

토론토 류현진이 23일(한국시간)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와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해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류현진은 비록 승리투수가 되진 못했지만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세인트피터즈버그(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8.00까지 치솟았던 평균자책점(ERA)은 어느새 3.19까지 떨어졌다. 이제 2점대 ERA 진입도 가시권이다. 상대의 집요한 공략에도 완벽한 제구로 위기를 탈출했다.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괴물의 모습을 다시 갖췄다.

류현진은 23일(한국시간)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해 5이닝 3안타 무4사구 6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3회말 23구, 5회말 30구를 던지며 긴 이닝 소화에 실패한 게 옥에 티. 1-1 동점이던 6회말 강판되면서 승리를 쌓진 못했고, 팀은 1-2로 져 7연승에 실패했다.

큰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풀어가는 특유의 모습 그대로였다. 2회까지 1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류현진은 3회말 선두타자 요시토모 쓰쓰고와 진땀 승부를 벌였다. 개막전 5회 2사 후 2점포를 맞아 승리투수 요건을 못 채웠기에 반드시 설욕해야 할 상대였다. 류현진은 9구 승부 끝에 바깥쪽 체인지업으로 범타를 유도했다. 3, 4회 역시 삼자범퇴. 5회말 연속안타로 무사 1·3루에 몰렸지만, 땅볼로 1점을 내줬을 뿐 추가 실점 없이 이날 등판을 마쳤다.

상대팀을 생각하면 더욱 의미 있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2위 탬파베이는 wRC+(조정득점생산) 116(리그 4위), 볼넷 비율 11.3%(리그 5위)로 ‘눈 야구’를 통해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팀이었다. 하지만 류현진의 팔색조 투구에 단 하나의 볼넷도 골라내지 못했다.

내용 자체는 좋았지만, 투구수가 많아진 이닝을 소화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3회 23개, 5회 30개 투구에 발목을 잡혔다. 처음 호흡을 맞춘 포수 리스 맥과이어의 미트질도 아쉬웠다. 스트라이크존의 경계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류현진은 프레이밍이 좋은 포수와 호흡을 맞출 때 힘을 낸다. 하지만 빅리그 경험이 일천한 맥과이어는 이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 이날 류현진은 유달리 포수 사인에 자주 고개를 가로저었다.

MLB닷컴의 게임데이에 따르면 명확한 스트라이크를 포구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2회 선두타자 호세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볼카운트 0B-2S서 몸쪽 꽉 찬 공을 던졌지만, 맥과이어가 놓쳤고, 심판은 볼로 판정했다. 류현진은 마르티네스에게 우전안타를 내주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4회 헌터 렌프로 상대 뜬공도 놓치며 답답한 장면을 또 노출했다. 같은 날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세계 최고의 포수로 불리는 야디에르 몰리나와 호흡을 맞춰 6이닝 무실점으로 첫 승을 따낸 것과 대조적이었다.

그래도 현지 매체는 칭찬 일색이다. MLB닷컴은 “팀이 기대한 에이스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정작 류현진은 여전히 성에 차지 않는 듯하다. 류현진은 경기 후 현지 매체와 화상 인터뷰에서 “더 적은 투구로 더 많은 이닝을 던졌어야 했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도 이미 토론토의 투자는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